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⑤ '낮과 밤이 다른 그녀'(2024)

우리는 누구나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지난 지면에서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를 통해 같은 외모에 다중인격을 지닌 인물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나의 인격에 외모가 변하는 인물을 만나보자.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여자〉(2024)의 주인공 28세 이미진(배우 정은지)은 무려 8년째 공무원 시험에 도전 중인 '공시생'이다.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셔온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각종 아르바이트로 얻은 잡다한 지식과 가산점이라도 받겠다며 따낸 숱한 자격증뿐. 그렇게 절망과 희망을 오가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미진은 50대 중년이 된 자신을 발견한다.

충격과 혼돈의 시간도 잠시, 때마침 서한시의 '시니어 인턴 채용' 공고문을 본 미진은 수십 년 전에 가출해 소식이 끊긴 이모 임순(배우 이정은)의 이름으로 '시니어 인턴직'에 지원해 합격한다. 28세 이미진이 이루지 못한 공무원의 꿈을 50대 임순이 단번에 이룬 것이다.

한편 서한지검에 자청해서 내려온 검사 계지웅(배우 최진혁)은 능력은 출중하지만, 실무관들이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게 만드는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다. 일명 '개검사'로 불리는 까칠한 지웅이지만 우연히 만난 사기 피해자 이미진에게는 자꾸만 마음이 쏠린다. 그러던 중 미진이 자신이 좇던 연쇄 부녀자 실종사건 범인의 목격자임을 알고 그녀의 신변을 지키다가 점점 사랑이 싹튼다.

그런데 낮 동안 임순이 되고, 밤이 되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미진이 발령받은 곳이 하필이면 지웅이 근무하는 서한지방검찰청이다. 첫 업무는 단순한 청소용역이었지만 그동안 경찰공무원, 법원공무원에 도전하며 법대생 못지않은 법학 지식을 쌓아온 덕분에 검사실 실무관의 보조원으로 활약을 시작한다. 물론 50대 임순의 모습으로, 그것도 지웅의 검사실에서 말이다.

검사실에선 여전히 '개검사'인 지웅에게 나이 든 실무관 보조가 마음에 들 리 없고, 지웅은 별의별 잡무를 모조리 떠넘기면서 임순이 스스로 그만두길 종용하지만, 외모만 50대인 임순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며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업무를 말끔하게 해치운다.

가족에게도 비밀로 한 채 낮에는 검사실에서 지웅과 함께 일하고 해가 지면 지웅과 데이트를 하는 미진. 지웅은 임순과 미진을 모두 만나지만 둘이 같은 사람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지난번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에서와 같은 질문을 해보자. 지웅이 만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같은 외모에 다른 인격을 지닌 경우에는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있지만, 인격이 같은데 외모가 다를 뿐이라면 비교적 답이 분명해 보인다. 겉모습이 아무리 달라진다 한들 지웅이 만나는 사람은 '미진'이기 때문이다.



JTBC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육신보다는 정신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오온이 임시로 화합된 상태가 진정한 '나'
고정된 '나'는 없어…순간순간이 '나'일 뿐

흔히 사람은 육신과 정신(혹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육신과 정신 중에 정신을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드라마 속에서 '임순'이 친구 도가영(배우 김아영)에게 자신이 '미진'임을 입증할 때도 마찬가지다.

50대 임순의 모습을 한 미진은 가영의 전 남자친구 이름라든지 생년월일, 집의 비밀번호 등을 줄줄 읊어대고, 둘만의 비밀과 추억들을 정확하게 맞춘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임순에서 미진으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쉽게 믿기지 않는 기이한 현상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가영은 '임순이 곧 미진'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50대 임순도 친구로서 스스럼없이 대한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육체적인 요소 한 가지와 정신적인 요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반야심경〉에도 나오는 '색(色)-수상행식(受想行識)'의 5온(蘊)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5온이 '화합'한 상태를 '그 사람'으로 판단한다. 5온은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어느 것 하나가 중심이 되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색, 수, 상, 행, 식이 동등한 자격으로 만난다. 이때 화합이란 찰흙 덩어리 다섯 개를 뭉쳐놓은 것과 같은 물리적 혼합이 아니라, 각각의 특징이 서로 녹아서 융합된 화학적 변화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동일한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같은 모습이나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오온의 화학적 변화에 따라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드러낸다. 그저 순간순간 변하고 있는 나의 5온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불교의 오온설은 다섯 가지 요소가 임시로 화합된 상태가 '나'이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음을 알려주려는 가르침이다. 이는 우리가 고정불변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고, 오히려 임시로 화합된 상태가 진정한 '나'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어릴 적 '나'와 나이 든 '나'를 외모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낮의 임순과 밤의 미진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순간순간이 그저 '나'일 뿐이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보자. 20대의 미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50대 임순이 되자마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하던 일을 하게 되었으니 행복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50대 모습의 임순은 미진의 본모습이 아니니, 아무리 능력을 인정을 받아도 미진의 것이 아니다. 미진의 입장에서는 20대 모습이든 50대 모습이든,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20대 미진을 통해 '현실의 나'와 '이상의 나'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현실의 미진'에게는 공무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상의 미진'이 있다. 그런데 정작 미진의 이상이던 공무원이 된 것은 임순으로 변한 미진이다. 임순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꿈꾸던 삶이지만 임순에겐 50대의 외모와 육체적 한계라는 힘든 '현실'이 있고,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을 해결하여 본래의 미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상'이 있다.

20대 미진과 50대 임순 사이의 비틀어진 이상과 현실은 그 어느 쪽에서도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한다. 대부분 사람은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상을 동경하며 현실을 한탄한다. 심지어 스스로를 비하하며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한다.

드라마 속에서 결국 미진은 미진의 모습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다. 우리는 누구나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이 꿈꾸는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가?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유력 후원자 고경의 실각
삼계교 탄압·쇠퇴 시작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⑨ 삼계교에 대한 탄압

가혹한 수행과 함께 삼계교도들의 중심사상인 보불보경(普佛普敬)의 신념은 당시 수도인 업도(鄴都)를 비롯해 각지에 널리 유포됐습니다. 철저한 수행과 민중을 위한 보살행을 펼치던 삼계교가 왜 위정자들에게 탄압을 받고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추측해 볼만한 것이 유력 후원자 '고경'의 실각입니다.

그는 신행선사가 업도에 처음 입성할 때에 선사의 수행을 흠모하여, 자신의 집을 헌납해 사찰(진적사·眞寂寺, 598년)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수 문제(隋 文帝)를 도와 일등공신이 된 사람으로서 삼계교도에겐 막대한 후원자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신하인 고경이 신행 선사를 돕기 시작하자 삼계교는 빠른 속도로 교세가 안정화되고 부흥이 이뤄졌습니다. 신행 선사 역시 수많은 제자를 얻게 되는데, 이때가 삼계교의 중흥이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삼계교의 탄압과 고경의 실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는 삼계교 첫 탄압의 시점이 유력 후원자의 실각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시주에 기울지 말고 십시일반의 자그마한 시주를 소홀히 말라'는 어른스님들의 오랜 경책을 되새기게 합니다.

삼계교 창시자 신행 선사를 도운 후원자 '고경'의 실각 이후 삼계교는 5회의 금압(禁壓)에 처해집니다. 물론 모든 탄압은 신행 선사(540~594)의 적멸 이후 이뤄집니다. 삼계교에 대한 탄압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① 수 문제(600): 삼계교 유행 금지. 599년에 고경의 실각.

② 측천무후(695): 이단으로 규정. 전적이 위경(僞經)으로 치부.

③ 측천무후(699): 활동을 걸식, 지계. 좌선에 한함. 전적은 삭제.

④ 현종(721): 화도사·복선사의 무진장을 없애고 재물을 분산시킴.

⑤ 현종(725): 활동 금지된 삼계원의 격장(隔障)을 제거.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탄압은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721년에 이르러서는 교단의 경제적 기틀인 무진장을 없애고 재물마저 분산 당하게 됐습니다. 삼계교의 장안 입성을 589년 전후로 볼 때, 약 130년 동안만 교세가 유지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삼계교의 '무진장'을 썩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종 때 이르러서 무진장을 없앤 뒤 4년 만에 삼계교도의 전체 활동이 금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계교의 무진장에서 실행한 '무진장행'은,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의 초기불교사상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이뤄진 목적과 달리 중국에서는 전란과 관리들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던 민중들에게 삼계교의 무진장은 좋은 양약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진장의 뜻은 원래 〈화엄경〉 〈유마경〉 등의 대승경전에 나타나있는 용어로 위로는 삼보, 밑으로는 빈궁에 보시하여 결함이 없음을 그 원의(原義)로 삼습니다. 삼계교 화도사(化度寺)에서는 이 경지에 입각하여 '대승무진장행'의 출처로 삼고 있습니다. 경전이 아닌 율부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내야〉에는 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존께 이르대, "만일 승가를 위해서라면 응당히 이윤을 추구해야합니다." 불(佛), 이 말을 듣고, "신심 있는 바라문 거사로 하여금 불법승을 위한 고로, '무진물'을 삼보에 보시하여 응당 회전(廻轉)하여 이(利)를 구해, 이물(利物)을 얻어 삼보 전에 회향하여 공양을 지으라."

삼보에 보시한 무진물(無盡物, 다함이 없는 물건)이란, 삼보를 위해 출식(出息)해서 이윤을 허용하고 있는 유부(有部)와 대중부 율전 등의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음(有)를 더욱 키워서 불전에 공양을 올리고, 그것에 이윤을 붙여 더욱 불려서 다시 그것을 공양물로 올리고 하는 모습을 상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